

Butadiene, 1000달러 돌파 초읽기

FOB Korea 960-980달러로 15달러 상승 ... 미국산 대량유입이 문제

Butadiene 가격은 6월25일 FOB Korea 톤당 960-980달러로 15달러 상승했다.

아시아 부타디엔 시장은 일본 및 한국 플랜트들이 정기보수를 실시하면서 공급이 타이트해 새로운 유럽물량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15-30달러 상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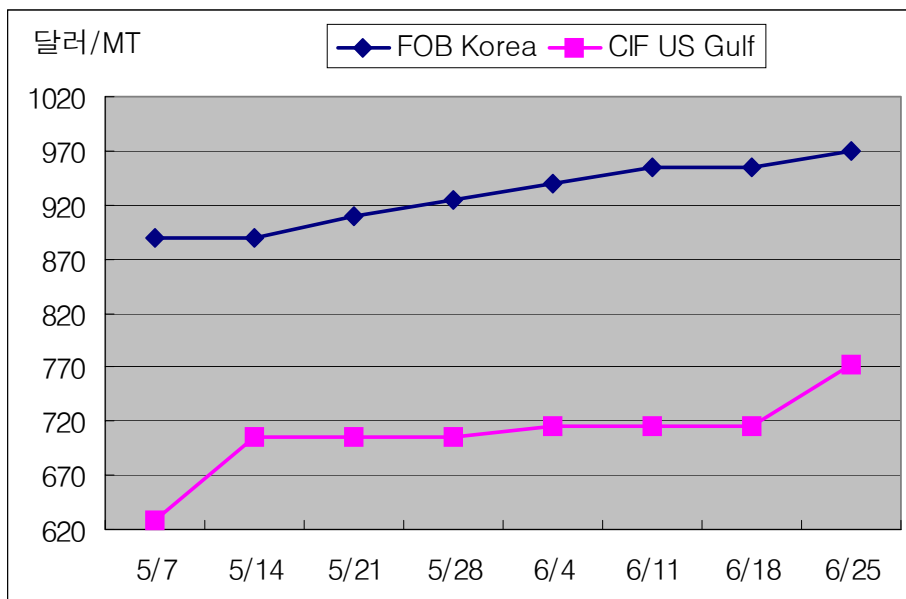
일본 및 한국 플랜트들이 정기보수를 마무리할 때까지 수급이 타이트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월 및 8월 초순까지는 공급물량 확보가 쉽지않은 상황이다.

이에 따라 일본의 Maruzen상사는 7월 하순 거래물량 2000톤 공급가격으로 FOB 980-990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다만, 미국 Sabina가 원료 공급중단 문제를 해결하고 풀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공급부족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Sabina는 3000톤 및 4500톤 Cargo를 8월 하순 도착 예정으로 동아시아로 출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그러나 중국이 8월 하순 도착 예정인 미국산을 CFR Nantong 톤당 100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1000달러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.

Butadiene 가격추이



한편, 미국의 부타디엔 가격은 6월25일 CIF US Gulf 파운드당 34.0-36.0센트로 톤당 평균 772달러를 형성하면서 56달러 폭등했다. 6월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32.0센트를 나타냈다.

<화학저널 2004/07/01>